

17. 고등학교가 생겨 났고 의무화 되었다

High School Invented/Required

2장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제 3 문화 자녀들(TCKs)이 되고 그들이 살게 된 나라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오늘날 대부분의 TCK 들과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학교 생활기록부가 대단히 뛰어났다. 그들 모두 좋은 집안 환경에서 자랐고 의사들도 그들에게서 아무 신체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사진을 찍을 순 없었지만 이들 젊은이들은 준수했다고 묘사되었을 것이다. 만일 SAT 나 ACT 를 볼 수 있었다면 이 청년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아마 SAT 에서는 700 점 이상, ACT 에서는 30 점 이상으로. 분명 그들의 부모들은 본국에서 자녀들을 훌륭히 교육시켰을 것이다. 그들이 배울 능력이 있고 잘 배운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성 검사에서 모든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실 그들이 졸업하고 나면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 공무원의 일도 할 능력을 갖추었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그 옛날의 다니엘과 친구들이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오늘 날 고등학생 정도의 십대들이었을 것 같다. 그들은 졸업하기 위해 여름 학기를 포함한 3 년의 과정을 마쳤다. 그 시간은 오늘날 여름 학기를 뺀 4 년의 시간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파견된 나라에 있는 기숙사 학교였고 그래서 다니엘은 기숙사에 살면서 가장 좋은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기숙사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기숙사 학생들의 기숙사 식당 음식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요즘엔 그렇게 가장 좋은 음식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배우는 과목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학, 그리고 그 나라 문화를 배우기 위한 일종의 인문 과목들이었다. 3 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그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국가 공무원 자리를 얻었다.

성경 시대 Bible Times

비록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숙사 학교에서 국립학교 교육을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나라의 공무원으로 일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본국의 기준에 의하면 그들은 나라나 교회가 아닌 집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신명기 6 장에 나와있는 그에 관한 명령들을 보자.

-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강론하며
- 길을 갈 때에 이 말씀을 강론하며
- 누워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강론하며
- 일어날 때에 이 말씀을 강론하며
-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 네 집 문설주에 기록하고
- 네 집 바깥 문에 기록하라

오늘날 우리는 다르게 말하겠지만 성경은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가족으로서 행하는 모든 것에서 교육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손목에 기호를 매는 대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암송카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거나 게시판에 핀으로 꽂든지 자석으로 냉장고에 붙일 것이다. 요점은 교육이 집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명기 6 장은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하고 있다. 자녀들이 “이것들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왜 행해야 합니까?”라고 물을 때 “내가 히라고 하니까” 또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니까”라고 대답해선 안되었다. 그들은 그들 나라의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과 번영과 장수를 위해 이 명령들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해야 했다.

탈무드(Talmud) 역시 부모에 의한 교육을 강조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할례를 행하고, 장자 속전을 드리고, 토라를 가르치고, 그에게 아내를 얻어 주고 기술을 가르쳐야만 한다. 어떤 사람은 수영도 가르치라고 한다. 랍비 유다는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적질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러나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마치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기두신: Kiddushin 29A). 계속해서 탈무드는 말하기를, “그리고 너의 자식들을 가르쳐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이 스스로 배워야한다. 너는 배울지니라고 써있기 때문이다”(기두신 29B).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었고 부모가 교육에 실패하면 자식들 스스로 교육을 책임져야 했다.

수천년 동안 부모들은 이런 책임을 받아들였다. 로마의 문화 속에는 부모가 자녀교육을 못하면 부모 대신에 교육할 누군가를 찾았다. 이런 개념은 수 세기동안 계속되었고 미국 초창기에 학교는 부모 대신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였다.

과거의 미국 USA Years Ago

유럽에서는 중세기 이후 전체주의 국가들이 자녀 교육을 떠맡기 시작했다. 미국인들은 자유를 강조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 세기 중반에 이르면서 메사추세츠 주와 델라웨어 주를 대조시키는 일이 발생했는데 다음의 말에서 볼 수 있다. “메사추세츠주 교육부 보고서는 선언하기를, 가장 중요한 것은... 메사추세츠주의 모든 아이들이 주에 의해서 교육되는 교육 시스템의 기초 위에... 이것은 우리 학교 시스템의 원리가 아니다... 우리 학교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는 전제 위에 세워졌다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 주가 해줄 수 있는 전부다). (일차 주 교육 회의, 도버, 델러웨어, 1843).

20 세기 초까지, 부모들은 자녀들을 계속 집에서 교육하기 위해 소송을 했지만 거듭 패소했다.

- 그러므로 부모는 그 문제에 대해 선택을 행사할 자유가 없고, 어떤 합법적 이유로 면제받지 않는 한 그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교 당국이 결정한 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가르침이 제공된다 (밀러 대 주 소송, 인디애나주).
- 그런 부모들에게 학교장의 허락없이 공립학교에서 자녀들을 집에서 데려가 교육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학교 시스템을 흔들고 주가 가진 공립 학교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주 대 코노트 소송, 워싱턴주).
- 아이들의 복지와 사회의 최고 유익을 위해 주가 그의 고유 권위를 사용하여 아이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 대 베일리 소송, 인디애나주)

1920 년에 이르면 한 개 주만 빼고 모든 주에서 십대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의무인 법을 만들었고 자녀들을 집에서 교육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었다. 그것을 시도할 경우 아이들은 무단 결석자로 취급되었고 부모들은 그에 대해 법적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 19 세기 중엽에 메사추세츠주에서 만든 첫 번째 의무 출석법은 아이들이 14 세까지 일년에 6 주씩 학교에 출석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로 인해 청소년기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 세기 중반에 이르게 되면 대부분의 십대들은 자녀가 일찍 학교를 그만 두도록 부모가 서명하지 않는 한 최소한 16 세까지, 아니면 17 세나 18 세까지 학교를 다녀야 했다.

그렇다해도 나이를 따라 학년을 나누지 않았다면 여전히 청소년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2 세기 전까지만해도 나이에 상관없이 그 학년에서 요구하는 학업을 마치지 못하면 계속 그 학년에 머물러 있었다. 예를 들면 1618-1620 년 프랑스의 샬롱(Chalons)에서는 저학년에 속한 학생들은 8 세부터 18 세까지 있었고 그 다음 고학년의 학생들은 8 세부터 21 세까지 있었다. 그들의 지식 수준에 따라 학년을 정했지 나이에 따라 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나이에 따라 학년이 올라가는 것이 법이 되었고 17 세나 18 세가 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일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졌다. 교육제도의 변화가 청소년기 발생에 있어 부분적 기여를 한 것이다.

물론 의무교육이 생겨난 것은 부분적으로는 서양 문화에서 청소년들에게 달리 할 일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일하거나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을 할 수 없었고 뭔가 할 일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할 일 없는 십대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 교육은 좋은 해결책으로 들렸던 것이다. 많은 십대들이 학교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공부할 동기 부여도 안되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As you can see, the majority of teenagers attending high school is an invention of the last century. 20 세기 초반 동안 십대들은 자신들이 점점 더 학교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얼마나 많은 14 세에서 17 세까지의 십대들이 20 세기 첫 삼분지 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학교에 등록되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 1900: 10 명 중 1 명이 학교에 등록했다 (11%)
- 1910: 7 명 중 1 명이 학교에 등록했다 (15%)

- 1920: 3 명 중 1 명이 학교에 등록했다 (32%)
- 1930: 2 명 중 1 명이 학교에 등록했다 (51%)

당신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고등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십대들이란 지난 세기의 발명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미국 USA Today

20 세기 후반기에 교육의 추세는 뒤바뀌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집에서 교육하거나 사립학교에 보내도록 점점 더 많이 허용되었다. 21 세기가 시작할 때 쯤에는 85 만명의 아이들이 홈스쿨링을 받았고 1130 만의 아이들이 사립학교에 다녔다. 다시 한번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되었다. 여섯 명 중 한 명 꼴로 홈스쿨링을 하거나 “부모의 위치에서(in loco parentis)” 교육하는 도구로 사용된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청소년기 제 3 문화 자녀들(TCKs)은 무엇을 할 수 있나? What Can Adolescent TCKs Do?

이런 통계들은 TCK 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TCK 들은 홈스쿨링을 받거나 일종의 사립학교에 다닌다. 비록 몇몇은 그 나라의 국립학교나 본국의 공립학교를 다니지만 그건 적은 수이다. 그런데 이 장의 요점은 다른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TCK 들도 대략 18 세까지는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다. 청소년기 발생 전의 TCK 들은 사춘기를 지나자마자 일하러 다녔고 결혼을 했다. 그러나 어떤 학교든 다녀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 제안이 있다.

-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라. 집중하라, 공부하라, 등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단지 요구되는 시간만 쓰는 것은 말이 안된다.
- 독서하라. 숙제를 마친 후 그저 빈둥거리지 말고 관심있는 모든 것에 대해 배우라. 사진이건 곤충이건...
- 공부하고, 과업을 마치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훈련 방법들에 대해 배우라.
- 학과 공부가 싫으면 직업/기술 과목을 택하라.
-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실습을 받으라.
- 선생님을 멘토로 삼아 만나서 함께 흥미를 가진 것에 대해 배우라.
-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이나 학위를 따라. 우리는 자격증 위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모든 필수 과정을 마쳤다고 말해주는 종이 한 장은 취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 고등학교를 중퇴했다면 검정고시 합격증이나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하라.
- 대학 수업을 들으라. 대학 가까이 살지 않는다면 세계 대학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

- 학교에서 좋은 태도를 보이면 선생님들에게 좋은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미래에 그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올 때 10 년 전 혹은 그 이전에 학교를 그만 둔 여섯 사람들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라.
- 파트 타임 직장을 잡아 일/ 공부를 해보라.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라.
- 당신이 흥미를 갖고 있는 분야에 조교가 되라.
- 특별히 좋아하는 과목이나 음악이나 운동과 관련된 클럽 활동에 가입하라
- 공부가 싫으면 일찍 졸업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라.
-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라.

+ 이 브로서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